

## 최초의 수세식 변기에서 요강문화까지

본 내용은 '자연을 꿈꾸는 뒷간(이동법 지음, 도서출판 들녘)'에서 인용한 것으로 저자는 7년간 '우리문화 탐사모임'을 꾸리며 전국 여러곳의 뒷간을 둘러보고 정리한 내용으로 수세식 화장실의 편리함 속에 잊혀지는 환경오염 해결책을 찾아 고민한 흔적이 깊숙이 배어있다.

이동법

최초의 수세식 변기와 화장실인 매화틀과 복수간 매화틀은 조선시대에 임금이나 왕족들이 사용하던 휴대용 변기다. 매화틀 또는 매우틀이라고도 불렀는데 임금의 분노를 매화(梅花) 또는 매우(梅雨)로 은유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매화라는 말은 임금의 용변을 '봄비에 흠날리는 매화'로 비유한 것이며, 매우에서 매(梅)는 큰 것을 말하며 우(雨)는 작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래 이 말들은 매회(煤灰)틀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매회'란 나무재를 말하는데 휴대용 변기의 경우에는 변기통 안에 재를 미리 뿌리므로 '매회'를 담은 틀이라 하여 '매회틀'로 불리게 되었다. 그후 임금의 용변을 은유화하면서 비슷한 말인 '매화', '매우'란 말로 변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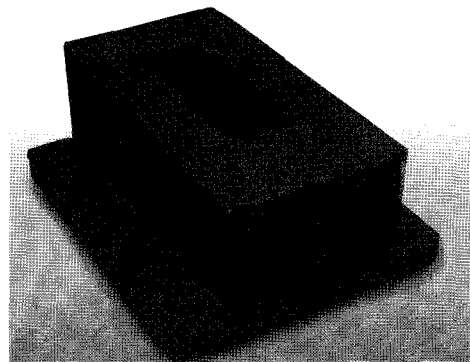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매화틀은 일종의 의자식 변기로서 좌우, 뒤쪽은 막히고 앞쪽은 트인 'ㄷ'자 모양으로 된 나무 좌변기다. 틀 밑에는 요즈음 아기용 변기처럼 윤기나게 닦은 서랍식 구리그릇이 놓여있고 나무틀 위에는 빨간 우단을 깔아놓았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매화틀을 관리하는 지밀나인이 구리 변기 안에 매추(梅窰)라고 하는 '잘게 썬 여물'이나 매회(煤灰:재)를 미리 뿌려놓고 가져간다. 왕이 일을 보고나면 또 다른 상궁은 깨끗한 명주수건을 준비하고 있다가 뒤를 닦아주고 나인은 매추를 다시 뿌린 후 매화틀에서 구리 변기를 꺼내어 이를 왕실병원인 내의원(內醫院)에 보낸다. 내의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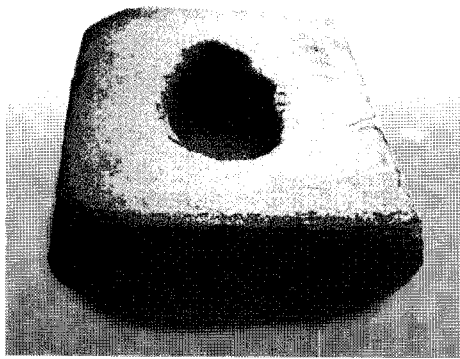
왕의 대변 상태, 즉 변의 농도와 색깔 등을 살피고 심지어 맛까지 보면서 왕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왕의 매화틀은 왕이 잠자는 침전과 정사를 보는 편전, 그리고 신하를 접견하는 전각등 모두 세 곳에 있었고, 왕비나 왕대비는 두 개씩으로 편전과 침전의 받침속에 놓아두고 썼다. 이 매화틀은 궁중에서 뒷간의 잦은 출입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만든 휴대형 변기이지만 사실 동의 상태를 잘 살펴 임금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목적도 있었다.

한편, 이 매화틀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다. 다만 불국사 경내에 있는 돌 매화틀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 매화틀  
조선시대에 임금이 썼던 휴대용 변기. 틀 안에 들어가는 받침 그릇은 현재 전해오고 있지 않다. (공중유물전시관 소장)



▲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수세식 변기  
우리나라 수세식 변기의 원조라 할 만한데 뒤를 본뒤 물로 씻으면 앞쪽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보고 있다. 불국사 종각계단을 지나 총지당 앞뜰에 보면 여러 개의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데 그 중에 돌 가운데 타원형의 홈이 파인 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매화틀은 신라시대 때 귀족들이 사용하였던 수세식 변기로서 네모난 돌 중앙에 타원형의 홈이 파여있고 홈 맨 밑 앞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에 받은 대소변이 물로 세척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다. 매화틀 위에 털썩 앉아서 뒤를 보았는지 아니면 양발을 딛고 앉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물로 세척하는 수세식 변기라고 보면 된다. 이 매화틀 옆에는 극락전이 있다. 극락전은 왕실과 귀족들만 드나들었다고 하므로 이 매화틀은 당시 극락전을 출입했던 귀족 이상의 여인네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화틀이 놓인 이곳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아마도

사찰에 참배를 할 때 매화틀도 사용하고 목욕재계도 했던 공간, 즉 북수간(北水間)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수간이란 원래 사찰에서 뒷물도 하고 목욕재계도 하는 곳을 말하는데 점차 민간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고대에서 목욕은 오늘날과 같이 건강이나 미용적 의미가 아닌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였다. 즉 정갈한 몸으로 신을 맞기 위해 목욕을 했던 것인데 삼국시대에 들어 불교의 전래 이후 목욕은 더욱 성행하게 된다.

「석씨요람(釋氏要覽)」에서는 목욕의 의미를 '몸을 씻고, 말(語)을 씻고, 마음을 씻는 것'으로 보았으며, 「불설온실세용가승경(佛說溫室洗浴家僧經)」에서는 '목욕을 하면 일곱가지 병을 물리치고 일곱가지 복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니 불교가 성행했던 당시에 목욕 문화가 어퍼했는가를 능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석씨요람」에서는 목욕방법에 대해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고 왼손으로 씻는데 먼저 밖에 나가 손에 재를 바르고 물로 씻는다. 다음 황토를 사용해 세 번씩 닦고 민물로 씻어낸다. 그리고 밀가루를 사용해 몸을 씻으며 팔꿈치까지 닦는다. 손을 씻을 때는 재, 황토, 밀가루 등을 사용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불국사에 매화틀이 발견된 곳이 북수간이라고 보는 것도 목욕재계와 뒷물을 하는 곳이 바로 북수간이었기 때문이다.

북수간이란 이름의 뜻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절에서는 '뒷물'을 북수(北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의 앞쪽을 남쪽으로, 몸의 뒤쪽을 북쪽으로 보는 동양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아시아는 북반부에 위치하여 차가운 북풍을 등에 지고 양명(陽明)한 남쪽을 앞에 두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南)자도 햇볕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며 북(北)자는 등을 돌려 지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

매화틀과 복수간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복수간 내에 있던 매화틀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어서 복수를 했을 것이다. 불국사에 있던 매화틀의 1차 사용 대상은 물론 절에 찾아온 신라의 상류층 여인들이겠으나, 만일 당시에 복수간 안에 매화틀 설치가 일반적인 추세였다면 위생적인 면이나 편리성, 그리고 주술적인 면에서 절 출입을 했던 여인들이나 비구니,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까지도 썼을 가능성도 있다.

불국사에서 나온 매화틀은 어떻게 뒤처리를 했을까? 앞에 지름이 5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물로 씻어내어 세척물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화틀에서 나온 물은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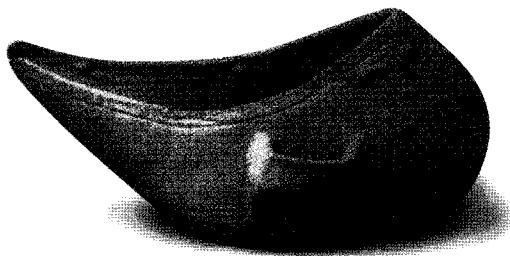
있고, 아니면 매화틀 앞에 뒷물 받는 그릇을 놓아 뒷발에 거름으로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뒷물하는 문화를 나는 몇 년 전 인도에서 보았다. 인도에 가보았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들판이나 밭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조그만 물병을 하나 들고 가 뒤를 본 뒤 밭짓개를 쓰지 않고 물로 뒤를 씻는 모습을 보았다. 음식을 만지고 먹는 손은 반드시 오른손을 쓰는 인도의 전통 풍습도 사실은 뒤를 씻는 손이 왼손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똥은 자연으로 되돌리고 항문은 물로 깨끗이 세척하면서도 물은 얼마 쓰지 않으니, 참으로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비데방식의 뒷간 문화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 재미있는 요강문화

일반 백성부터 임금까지 두루 썼던 요강은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부들의 필수 혼수용품이었다. 요강은 주로 여자들이나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이 썼지만 옛 선비들도 사랑채 뒷마루의 끝에 오줌동이나 요강을 두고 소변기로 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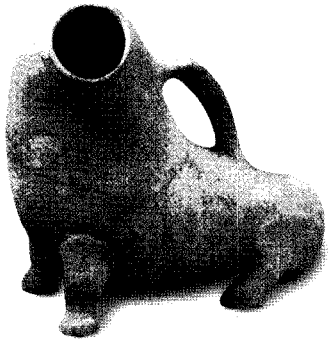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강은 충남 부여군 군수리에서 발굴된 백제의 요강 두 개다. 그 중 하나는 호랑이가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 ◀ 여성용 요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강으로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이 낮아 걸터앉기 편하게 만들었다. 뒷부분의 끝을 뾰족하게 귀를 만들어 밭에 거름으로 쓰기 좋게 하였으니 요강과 귀매동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무척 재미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최초의 수세식 변기는 신라시대 귀족들이 사용하던 변기로 너모난 돌 중앙에 타원형의 홈이 파여있고 홈 맨끝 앞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에 받은 대스변이 물로 세척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다.



◀ 충남 부여군 군수리에서 발굴된 호자  
백제시대의 남성용 요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높이가 25cm 정도로 작아 무릎 꿇고 불일을 보기보다는 손잡이를 들고 썼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모양이라 하여 일명 호자(虎子)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요강그릇이 많았다고 한다. 등의 손잡이와 짧은 다리가 앙증맞고 귀엽다.

호자란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토기를 말한다. 이 토기는 동물모양 청동기에서 점차 발전된 형식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의 호자는 주기(注器), 다구(茶具), 명기(皿器) 등의 목적으로 제작 사용된 특수용기다.

반면에 부여 군수리에서 발견된 호자는 남성용 소변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을 형상화하여 다소 해학적이며 백제의 독창적인 면을 짐작케 해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임금도 요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요강에 담긴 오줌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렇듯 요강의 용도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저마다의 필요한 구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의 용체를 점검하는 도구로 쓰여졌고, 선비들에게는 품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쓰였으며, 여성들에겐 사회규범상의 제약과 필요에 따라 쓰였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겐 편리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이 요강은 남녀가 따로 사용했는데, 요강의 재질을 보면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으며, 유기로 된 요강도 있고, 나무 속을 파서 옷칠하여 만든 요강도 쓰였다. 신분 높은 왕족의 여인인 경우에는 가마 속에서 소변보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는 비단으로 촘촘히 짠 비단요강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쓰임새에 따라 요강의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말이나 가마를 타고 여행 다닐 때 쓰는 늦요강을 길요강이라 했고, 필요에 따라 똥까지 받아내야 했던 요강은 똥요강, 어린이들의 변기로 쓰이던 작은 요강은 알요강이라 불렀다. 여인네들이나 노인들이 뒷간의 밤 출입이 어려울 때 쓰는 요긴한 향아리란 뜻으로 요강의 별칭을 야호(夜壺)라고도 했다.